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생애 첫 亞단체선수권 ‘금’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승선한 한국 여자대표팀이 ‘2026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합류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8일까지 중국 칭다오 콘손체 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대회 창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단체선수권에서 타이틀 한 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주로 2진급 선수를 파견했다. 실제 역대 최고 성적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2년 여자 단체전에서 기록한 준우승이었다. 남자 단체전도 2024년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동메달을 획득했을 뿐, 결승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첫 우승을 노리며 완전체 전력이 출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안세영이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올해 역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와 인도오픈 2연패라는

아시아 남녀단체선수권 결승서 중국 3-0 완파

한국 여자대표팀, 2016년 대회 창설 후 첫 우승

세계남녀단체선수권대회 본선 진출권 확보도

금자탑을 연달아 쌓아 올리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BWF 투어까지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안세영은 이 대회 출전으로 새로운 이력을 작성할 기회를 잡았다.

안세영이 선봉에 선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5-0 승)와 대만(4-1 승)을 잇달아 격파하며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이어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제압했고, 안세영이 휴식을 취한 준결승에서도 인도네시아를 3-1로 몰리치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도 안세영이 첫 주자로 나서 한첸시(38위)를 39분 만에 2-0(21-7 21-14)으로 완파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여자복식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가 지아이란-장수셴 조를 2-0(24-22 21-8)로 눌렀고, 김가는(삼성생명·세계

랭킹 17위)이 쉬원징(127위)을 2-1(19-21 21-10 21-17)로 몰리치 5전 3승제 방식에 따라 우승을 차지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 배드민턴 최강국을 가리는 국가대항전 성격의 대회다. 특히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 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한다. 이번 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한국 여자대표팀은 이로써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본선 출전권을 일찌감치 자력으로 확보했다.

한편 ‘에이스’ 서승재(삼성생명)가 여객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남자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에 2-3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남자 대표팀 역시 4강 성적으로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마스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안세영이 합류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8일까지 중국 칭다오 콘손체 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광남일보**

새 시즌 도약 노리는 광주FC, 선수단 등번호 발표

주세종 8번·하승운 9번·김진호 27번 변경 ‘눈길’

프로축구 광주FC가 2026시즌을 함께할 선수단 등번호를 공개. 새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시즌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다수의 선수들은 기존 등번호를 유지했다. 안영규(6번), 신창무(40번), 최경록(10번), 김경민(1번), 이민기(3번) 등은 익숙한 번호와 함께 변함없는 책임감으로 2026시즌을 맞이한다.

등번호 변경을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진 선수들도 눈에 띈다. 주세종은 지난 시즌 80번에서 본인의 상징적인 번호인 8번으로 변경하며 팀의 핵심 역할 수행을 예고했다. 하승운은 청소년 대표 시절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9번을 선택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으며, 김진호는 2024시즌에 달았던 27번으로 돌아가 재도약을 준비한다.

또한 강희수와 김동화는 각각 대학 시절 의미기 담긴 42번과 23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했다. 노희동(21번), 안혁주(19번), 권성운(22번), 박성훈(15번) 역시 새로운 번호와 함께 시즌을 준비한다. 새롭게 합류한 박원재(33번), 오하중(77번), 이윤성(71번)도 개성을 살린 등번호를 선택하며

SQUAD NUMBERS 2026 K LEAGUE 1									
1	3	6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1	22	23	24	25	26	27
33	39	40	42	71	77	79	88	99	

팬들에게 첫인상을 전할 예정이다.

광주는 새 등번호와 함께 현재 경상남도 남해에서 2차 동계 전지훈련에 집중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수단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SK FC와의 2026시즌 개막전을 통해 승리로 새 시즌의 출발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올 시즌 리그 유니폼 ‘MIRACLE WAVE’ 공개

구단의 정신·정체성 등 표현…기적의 역사 반영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K리그 무대를 수놓을 새로운 리그 유니폼을 공개했다.

8일 광주FC에 따르면 지난 6일 구단이 그동안 써 내려온 도전과 기적의 서사를 반영한 2026시즌 리그 유니폼 ‘MIRACLE WAVE(기적의 파동)’를 공개했다.

이번 시즌 유니폼은 ‘MIRACLE WAVE’라는 콘셉트 아래, 매 시즌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 온 광주의 정신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기적의 연속성과 확산을 상징하는 파동 형태의 패턴을 적용,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에너지가 파동처럼 퍼져 나가는 광주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원단 전반에도 해당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을 섬세하게 반영했다. 자카드 방식으로 제작된 원단은 역동적인 시각 효과를 더하며 유니폼의 완성도를 높였다. 유니폼 넥 뒤에는 연고지 광주를 상징하는 한자를 모티프로 한 아트웍을 적용, 구단의 철학과 나아갈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유니폼 디자인에는 구단 역사 속 의미 있는 순간들도 세밀하게 녹아 있다. 창단 첫 승격을 이뤄낸 2014시즌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카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ACLE 8강 진출 당시 사용됐던 네이비 컬러와 하의 디자인 요소를 재구성해 과거의 성과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홈 필드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기반으로 네이비 컬러를 조합하고, 레드 컬러를 포인트트로 활용해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어웨이 필드 유니폼은 흰색을 바탕으로 네이비와 레드 포인트를 더해 깔끔하면서도 광주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광주 체육의 새로운 도약…지역 성공 모델 만들 것”

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명품 스포츠도시 26개 과제 추진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마련 등

광주시체육회가 명품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8 밝혔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5개구 체육회장과 63개 종목단

체장을 포함한 재직 대의원 68명 중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6건, 의결사항 3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도 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및 변동사항 보고,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계획 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스포츠클럽 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 변경, 2025년 사업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2026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제시하고, 5대 분야

26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갑수 회장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유치라는 값진 성과는 5개구 체육회장, 종목단체장과 체육인 모두의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8년 전국체육대회를 광주 체육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체육 발전의 성공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KIA 김도영 합류’ 야구 WBC 대표팀 30명 확정

KBO, 이정후·김혜성 등 출전…한국계 빅리거 합류도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3월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한다.

8일 KBO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WBC 대표팀 기자회견을 개최, 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 30명이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표팀 명단에는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4시즌 KBO리그 MVP인 그는 KIA 구단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외에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한국계 빅리거4명이 명단에 올랐다.

한국계 선수로는 야수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세이 화이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과 투수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4명이 WBC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이번 대표팀은 투수 15명, 야수 15명으로 구성됐다. 투수는 좌완이 류현진(한화 이글스)을 비롯해 4명, 오른손 투수는 더닝과 오브라이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이정후와 김혜성,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한국계 선수 4명 등 총 7명이다.

우리 대표팀은 이달 중순 초집돼 일본 오카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WBC 조별리그 C조에 편성된 한국은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시작한다.



일본 아사미오시마 스포팅캠프 훈련 중인 김도영.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한국은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경쟁하며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